

한꿈청진기

2023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제4호

발행처 매일신문사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홈페이지 www.youngdream.co.kr 전화 053-255-5001

내 꿈은 내가 찾는다!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가 함께 한
꿈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활동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사업(이하 꿈청진기)을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꿈청진기는 지역 내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기관들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이 중 선택한 기업들을 사전조사 및 분석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꿈청진기 사업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실제 직업인과 소통하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진로탐구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꿈청진기 사업에는 대구지역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총 25팀(팀별 5명 내외, 총 100명)이 참가하였고 지역 내 12개 기업(대구의사회,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더퍼스트병원, 리얼테크, 매일신문, 엑스코, 이월드, 푸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화성산업, 가나다순)이 학생들의 취재와 체험 활동에 협조해 주었다.

기자단 활동의 결과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기사작성 부문, 광고제작 부문)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총 14팀이 선정되었다.

제4호 꿈청진기 신문과 기자단 활동사진 등은 홈페이지 (www.youngd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 현황 축하합니다!

구분	기사작성 부문		광고제작 부문		훈격
	학교/팀명	팀원	학교/팀명	팀원	
최우수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메카크로스>	손진원, 손주원, 채강민, 고현민, 박승주	왕선중학교 <잔나비>	남현서, 윤연후, 박채현, 김서영, 김지민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상원중학교 <온새미로>	정주원, 이서윤, 윤다영, 장윤서, 김민지	왕선중학교 <Hello Future>	박시연, 홍여정, 조예원, 강윤서	
우수상	덕원중학교 <열망의 창조>	조서현, 이대현, 안영신, 김상준, 윤지후	새론중학교 <창창미>	김유경, 배수빈, 서한나, 최민정	매일신문 사장상
	성산중학교 <새봄 성산>	박서현, 류연주	포산고등학교 <Papillon>	김예은, 곽민준, 손서윤, 정인혜, 박세호	
장려상	성산중학교 <성산오형제>	손신욱, 박재현, 정윤현, 허준우, 금민준	상원중학교 <온새미로>	정주원, 이서윤, 윤다영, 장윤서, 김민지	
	포산고등학교 <Papillon>	김예은, 곽민준, 손서윤, 정인혜, 박세호	왕선중학교 <금쪽이와 아이들>	안태윤, 홍송아, 이지후, 김세은	
	새론중학교 <창창미>	김유경, 배수빈, 서한나, 최민정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메카크로스>	손진원, 손주원, 채강민, 고현민, 박승주	

대구광역시의회



기업소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구시민 대표기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대구시의회')는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결 기관이다. 1991년에 개원하여 현재 지역 의원 30명과 비례대표 3명으로 총 33명의 의원과 약 140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의원은 대구 지역을 인구수대로 나뉘서 지역마다 다른 수로 선출한 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한 의원이다.



대구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 6개, 특별위원회 4개로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다. 의원은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 상임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매년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 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과 같은 기타특별위원회가 있다.

대구시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와 정례회의로 구분된다. 정례회의는 1년에 2회 열리며 모든 의원이 참여한다. 임시회의는 대구광역시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고 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 대해 궁금하다면 정례회의가 열릴 때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방청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크게 5가지의 일을 한다. 첫째,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둘째, 수도세 같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한다. 셋째, 시청의 행정을 감시한다. 넷째, 수수료와 지방세 같은 세금을 조율한다. 다섯째, 시민이 제기한 불만이나 의견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의원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의정 활동을 한다. 또, 하프 마라톤과 같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시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3선까지 가능한 시장과 구청장과 달리 시의원은 제한이 없다.

대구광역시청은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행정 사무를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두 기관 모두 대구광역시를 이끌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대구 시민의 귀와 손이 되어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대구를 더욱 아름답고 힘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산중 <새봄성산>

업종현황

주민의사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1952년 이루어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 처음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의회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행정 기관과 상호작용을 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원래 32명이었던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가 33명으로 늘었고, 통합 신공항 추진을 담당하며 항공과 교통의 도시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이다.

지방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대구시의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선 교육, 경제, 복지가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예로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소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역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

4차에 걸쳐 이뤄진 산업 혁명은 사회와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었지만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중심활동은 변함이 없다. 반면 지방의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공공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큰 역할자로서 그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산중 <새봄성산>

새론중 <창창미>

INTERVIEW 이재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Q. 시의원이 된 후 보람된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시민분들이 제게 고마워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간혹 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때 속상합니다. 아무리 많은 분을 만나더라도 모든 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시의원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의 언니가 의회 활동을 해서 언니를 도우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의원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의 권유와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최초의 자매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Q. 시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도덕성과 정직성이 필요하고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면 시의원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Q. 시의회 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는 국회직이라는 공무원이 따로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의회직이 없어서 일반 행정직 공개채용 시험을 치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대구광역시의회 기초자치단체로 발령이 나고 전입 시험을 친 후 광역자치단체 대구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시의회로 지원하면 이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Q. 의회에 AI로 인해 변화된 것이나 대체된 업무가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속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AI 음성인식을 사용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가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면 속기사가 가장 먼저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시범적으로 AI 속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대선 이후의 시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영향을 받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여당 소속의 후보 5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전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후보가 당선된 거라 여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산중 <새봄성산>

대구테크노파크

DGTP 대구테크노파크
DAEGU TECHNOPARK

기업소개

대구 기업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서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 준다.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도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자본, 기술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TP는 대구 기업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대구TP는 5대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도 pre-스타기업 10개사와 스타기업 5개사를 신규 선정하였다.

대구TP는 대구에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면서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대구TP는 1단계 사전평가(요건검사, 재무평가 및 서면평가)와 2단계 심층평가(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신규 스타기업을 선정한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기업 맞춤형 패키지 신속지원, R&D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재편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TP는 최근 메타버스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메타버스 도서관 체험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대구월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고유 자산 및 특화산업 등을 활용해 메타버스 대구월드 조성사업 참여 기업 3곳(알앤웨어, 와이에이치데이터베이스, 인더텍)을 지정하였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고 다양한 대구 지식자산을 활용한 대구형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해 정부 주도의 민간 자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구TP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처음 기업을 창업한 청년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러서 실패하거나 쉽게 포기하기 일췌이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대구TP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기업들은 사회에 대한 안목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듯 대구TP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구와 기업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며 그 지원은 대구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성산중 <성산오형제>

업종현황

파워풀 대구를 만드는 파워풀 파트너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OECD 국가 중 2위이지만 5년 생존율과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창업 후 생존과 성공을 위한 자금 조달, 경쟁시장 분석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같은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는 1998년 12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대구 권역에 분야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여러 기업들의 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에 위치한 대구TP는 지역 산학 연합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TP는 지역산업정책, 기업 성장지원, 기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주도한다. 대구TP 측에 따르면 대구TP와 협력하는 대구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44개의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조 8795억으로 전년보다 15.5%, 고용은 1만 4446명으로 4.1% 증가했다. 또 대구TP 덕분에 스타벤처에서 상위그룹으로 성장한 기업이 229개라고 한다. 최근에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5대 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통하여 미래의 대구의 발전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대구TP의 이러한 정책은 대구를 어떤 다른 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대구TP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구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성공률을 높여서 대구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구TP의 도건우 원장은 ‘새옹지마’를 강조하면서 “사람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구의 청년들이 도전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구TP는 청년들의 창업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거침없는 청년들의 도전은 대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산중 <성산오형제>



왕선중 <금쪽이와 아이들>

INTERVIEW

도건우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Q.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구에서 원하는 기업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고, 독창성과 대중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Q. 대구 미래 5대산업은 무엇인가요?

AI, 빅 데이터, 블록체인이 속한 ABB, 드론 같은 UAM이 있고 이외에도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Q. 원장님이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도와준 기업들이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테크노파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위에 곧 공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항이 설치된다면 대구도 인천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기업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때 대구테크노파크가 이런 기업들을 돕는다면 대구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결국 꿈을 쫓아서 대구테크노파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전정신과 끈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성산중 <성산오형제>

(주)리얼테크



기업소개

(주)리얼테크, 드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도약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리얼테크는 대표 1명과 직원 약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기업으로 2017년 10월 설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무인항공기(드론)를 다루는 회사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무인항공기(드론)와 관련된 R&D 및 스마트 드론(자율비행, AI, Big Data 등)이 있다. R&D 사업은 드론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융합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비행하는 자율 비행 시스템 개발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용도 드론을 개발 및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혁명 속에서 차세대 교통수단 및 편의 시설 구축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가 흔히 SF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속 편리한 삶을 위해 (주)리얼테크는 IoT기술뿐만 아닌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드론의 성능 개선은 물론 활용 범위까지 넓히고 있다.

(주)리얼테크는 드론 연구 개발과 더불어 드론 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기초, 민간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 비행장 운영과 함께 VR을 통해 가상 비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 된 드론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 비행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풍력발전기, 교량, 송전탑 등의 현장을 직접 구현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시설물 점검 특화 비행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항공 영상 촬영,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화재 현장 식별, 시설물 점검 등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개발을 통해 드론의 미래 도약에 더욱 힘을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에 대해 알리고 여러 산업 현장과 재난사고 현장에 드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리얼테크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 된 지금 드론 개발 및 연구, 교육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도약하는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이다.

경북기공 <기계메카크로스>



업종현황

우리의 날개가 되어줄 드론의 성장

최근 드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혁명 속에서 차세대 교통수단이 자 서비스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드론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기업 또한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드론의 확장사업 중 하나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이 있다. 농업에서의 드론은 농업용 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농작물 실시간 감시, 실시간 정보 제공, 농약 및 비료 작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oT)을 더해 AI의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농사에 필요한 내용을 즉시 피드백하여 농부들의 시간을 절감시켜 주고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드론은 재난 사고 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약한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촬영하고 감시함으로써 산업 현장 안전 문제 개선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무궁무진한 드론의 활용도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 인프라 구축 및 윤리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로 이를 실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높은 건물이 많고 대부분 마당이 없어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 또한 충전 문제 및 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 또한 소리에 예민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윤리적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통과 운송 분야뿐 아니라 산업별 맞춤형 드론 운영 등 드론이 이끄는 혁신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기공 <기계메카크로스>



경북기공 <기계메카크로스>

INTERVIEW 이충관 (주)리얼테크 대표

핀 드론 사랑 (주)리얼테크 이충관 대표 만나다



지난 10월 27일 (주)리얼테크 이충관 대표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매일신문이 함께 주관하는 '꿈 청진기'의 활동으로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의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며 4가지의 질문과 답이 오갔다.

Q. 회사 이름을 리얼테크로 선택한 이유 및 설립 시 목표가 무엇입니까?

리얼테크를 있는 그대로 풀이해 보면 진짜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저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짓고 보니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상용화되어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Q. 현재의 드론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까요?

Q. 회사를 운영하면서 뿌듯했거나 자랑이 될 만한 업적이 있나요?

업적을 꼽기보다 저희 회사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실제로 리얼테크는 드론을 제작하는 일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VR을 활용한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조종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3명만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교관 자격이라는 전문성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드론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드론, 비행기를 좋아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래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입니다.

경북기공 <기계메카크로스>

매일신문사

매일신문

기업소개

지역 대표 언론사...시대 흐름에 발 맞춰 발전 중

매일신문사는 1946년 3월 1일에 창립된 지역 언론사로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에 본사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경북본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 약 22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290억 정도이다.

매일신문은 1946년 '남선경제신문'으로 창간하여 1950년 8월 1일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칭했다가 1960년 다시 '매일신문'으로 신문 제호를 바꿨다. 처음 매일신문은 석간신문이었지만 조간신문이 추세가 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조간신문으로 발행되고 있다. 매일신문사의 논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지만 지역성이 강한 매일신문은 정치 기사보다는 지역 기사를 중점적으로 쓰고있으며 그 비중도 압도적이다. 매일신문은 대구 경북에서 1등 신문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신문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매일신문사는 매년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주최, 주관하고 있다. 그중 유명한 '대구 메이커 페스타'를 2019년부터 주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마라톤과 사과축제 등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매일신문사는 자그마치 21년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 숨은 조력자인 정기 기부자들과 가정복지회의 도움으로 이들을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1964년 언론윤리법 파동 때에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선 공로로 매일신문의 최석채 전 주필님은 2000년 국제언론인협회가 선정하는 '20세기 언론자유 영웅 50인'에 뽑혔으며, 이 부분 또한 매일신문의 자랑거리이다.

현대에 들어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신문도 종이신문보다는 온라인 신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매일신문사도 유튜브에 '매일신문' 채널을 개설하고 그 밖에도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플랫폼에도 입점했다. 매일신문은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신중 <꿈기자단>



업종현황

세계의 변화, 신문의 변화

21세기에 들어서며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사물인터넷이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터넷 신문이 생겨남에 따라 그 옛날 우리가 많이 읽던 종이신문은 하락세를 걷게 되었고 종이신문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 신문이 뉴스를 생산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경계가 점차 흐려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신문도 온라인 뉴스를 만들어 유튜브, 틱톡 등 SNS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터넷 신문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신문의 속보성 때문이다.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보려면 아침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거의 하루가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으며, 그나마 속보성에서 종이신문을 앞서는 방송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TV 앞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의 경우,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접속만 하면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날씨, 교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조간신문보다 더 빨리 현재 진행 중인 뉴스의 최신 버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지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의 요구에 따라 좀 더 심도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기존 언론 매체는 독자나 시청자가 수동적인 수용자였는데 반해, 인터넷 신문에서는 뉴스가 뜨는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용자로 한 단계 끌어올려진다. 그리고 전문잡지의 영역이었던 분야별 전문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21세기형 미디어의 특징인 미디어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의 영향으로 점차 인터넷 신문의 수가 늘며 2016년 7월 현재 국가지표에 기록된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서 인터넷 신문은 660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등록된 언론사만 2850곳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매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취재팀이 부실하여 양질의 기사를 만들기 힘들어 전형적인 호기심만 자극해서 조회 수를 늘리는 황색언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인터넷은 계속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신문의 변화 또한 기대된다.

영신중 <꿈기자단>



왕선중 <잔나비>

INTERVIEW

최병고 매일신문 서울취재본부장

Q. 기자란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라 할 수 있죠.

Q. 기자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때가 있나요?

'이웃 사랑'이라는 코너를 맡게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신문 기사를 쓸 때 주의하는 점이 있나요?

기사를 쓸 때는 무엇보다 팩트 체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종을 놓치더라도 오보를 내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신문 기사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보 전달이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여론을 모아 알리면서 지역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기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중 <꿈기자단>

엑스코



기업소개

MICE산업의 미래가치를 선도



메타버스, 인공지능,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엑스코를 빼놓을 수 없다. 시민들에게는 문화기대를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장을 제공하는 엑스코는 1995년7월에 출범된 지방 최초의 컨벤션센터이다. 이처럼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MICE산업을 비전으로 엑스코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을 타깃으로 전시회를 기획·개최하여 전시회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Exco라는 글자와 빨간색의 조합은 늘 새로운 느낌을 준다. EXCO는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의 약자인 것과 동시에 미지수 X의 뜻으로 X는 무한한 고객 만족을 지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대 그 이상의 감동과 행복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더군다나 빨간색은 대구를 대표하는 컬러로 엑스코의 최고의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로 더 큰 미래를 창조해 가겠다는 엑스코의 열정을 의미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가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엑스코는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과 빼어난 기획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앞서 나가기에 엑스코의 장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엑스코 주관 전시회 사업영역에서는 물, 첨단의료,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로봇 등 대구·경북의 특화산업을 주제로 전시, 컨벤션을 기획하고 개최한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대한민국소방안전박람회, 대구국제미래차엑스포부터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전시회인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안전산업 뉴딜 대전 등 연간 30여 회의 전시회를 통해 전시회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엑스코는 회의실, 공연장 등 다양하고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엑스코가 제공하는 공간에는 새로운 트렌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인드가 잘 어우러져 있다.

엑스코는 전시·컨벤션센터로서 역할뿐 아니라 부대시설 임대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엑스코 가구물, 웨딩 및 케이터링 서비스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 운영으로 행사 참가자와 주최자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자에게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엑스코에서 결혼했어요’ 등 많은 관심이 엑스코의 부대시설 임대 및 부대사업 운영으로부터 나왔다.

‘창조혁신, 지속성장, 정도경영’이라는 핵심가치는 엑스코의 향후 방향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왕선중 <Hello Future>



왕선중 <Hello Future>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업소개

로봇산업의 글로벌 리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 산업에 방해되는 정책 등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로봇의 인도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의 관계자는 “밖에서 배달하는 실외 로봇이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고 차도로 다니면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로봇의 속도가 10km/h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라서 그 정책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입니다.”라며 정책 개발의 한 예시를 들었다. 덧붙여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러한 법이 없어서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한국은 법에 없을 시 하면 안 되고, 미국은 법에 없으면 일단 해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없으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로봇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하며 한국의 과도한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정책 개발의 방향성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기업의 안전과 발전인가, 사회의 공익인가?’라는 질문에 “진흥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원칙적으로는 국내 로봇 기업 성장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으로 공익적인 위치에서 일하려고 노력한다.”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또 다른 하나는 로봇 산업에 종사하는 신생 기업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종목은 시장 창출형, 수요 맞춤형, 유망 기술 사업화 촉진 등 여러 종류로 세분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유망 기술 사업화 촉진 사업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기술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술과 아이템에 대한 멘토링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농어촌 중심 초·중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창의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대상의 창의 나눔,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의 창의교실, 자유학년제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의 진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포산고 <아기자기>



포산고 <아기자기>

더퍼스트 병원



기업소개

최신 의료시설로 최적의 진료시스템 구축



달성군 화원을 지역민들이 대구 시내까지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더퍼스트병원은 ‘환자 중심의 따뜻하고 스마트한 병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신 MRI, CT 등 대학병원급 의료장비와 풍부한 임상경험의 우수한 의료진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더퍼스트병원은 1층에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 목 관절 척추 관련 질환과 그 수술을 담당하고 진료하는 정형외과, 당뇨 고혈압 또는 감기 독감 등의 질환을 진료하는 내과, 여러 질환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진료하는 통증의학과, 증상완화와 질병 질환의 진료를 돕는 물리치료실과 수액치료실 등이 있고, 2층은 수술실과 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검사를 하는 영상의학과, 혈액검사를 통해 질병을 판단하고 검사하는 진단검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 개원해 깨끗하고 쾌적한 3층 입원병동은 경험 많고 친절한 간호사들이 24시간 든든하게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더퍼스트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진료과목별 뿐만 아니라 대구요양원, 신요양병원 등 타 병원과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특히 나이트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밀하게 보살핀다는 점이다.

건강검진부터 척추, 관절치료까지 한 곳에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원-스톱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박재현 대표원장은 “향후 로봇수술, 인공지능, 개인 맞춤형 의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스트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08:30~17:30, 주말 08:30~12:30이며 21시까지 야간진료도 가능하다.

대진중 <꿈꾸미>

"최상의만족도! 최고의 서비스!"

더퍼스트 병원

THE FIRST HOSPITAL

신속한 대응

환자분들의 이용과 불편함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

전문의료진 협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최선의 치료가 한번에 가능합니다.

친절한 응대

친절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 마음가짐으로 항상 밝고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더퍼스트는...
병원대학병원급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닌 숙련된 전문의의 협진으로 검사부터, 수술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63
더퍼스트병원 | 대표: 박재현 외 2명 | 053-710-8211

더퍼스트병원

왕선중 <잔나비>

DGB대구은행



기업소개

IM뱅크와 함께 시중은행으로 도약

DGB대구은행은 1967년, 지방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한 이후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세워진 첫 상업은행이기도 하다.

DGB대구은행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 소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취약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M뱅크’다. IM뱅크는 개인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은행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그 결과 현재 160만 명이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차별화된 디지털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슬로건 ‘Digital & Global Bank’의 약자 DGB는 지방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와 더 넓은 세계로 발돋움한다는 기업의 포부가 담겨있다. 지방을 벗어나 타 지역과 해외에 영업점을 개설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현지 법인을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은행으로 향하는 현재 모습을 담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56년간 지역사회 발전이 곧 대구은행의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무엇보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펼쳐 지역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은행이 되고자 지역의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지수(KSI) 지역은행 부문 3년 연속 1위, 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 채용 인증 획득, 기업 및 지속가능성보고서(KRCA) 서비스부문 4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한 대구은행은 필요한 일정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갈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IM뱅크’는 신규고객과 역외고객의 비중이 지역고객을 앞지를 만큼 영향력이 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립 때부터 지역과 함께해 온 DGB대구은행, 이번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영업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론중 <새론On>

DGB

다양한 연령을 고려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 고객님들과 함께 성장한 56년의 역사

앞으로 100년 까지
DGB 대구은행이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

디지털과 함께 나아가는 대구은행

포산중 <PDN>

주식회사 이월드



기업소개

타워와 공원이 어우러진 유럽식 테마파크

주식회사 이월드(이하 이월드)는 테마파크 이월드를 운영하는 테마파크 사업과 주얼리, 시계, 패션잡화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얼리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월드는 주식회사 우방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2005년 7월 5일 설립되었으며, 2010년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인수된 이랜드그룹의 상장회사이다.

이월드는 세계 유일의 타워와 공원이 어우러진 유럽식 도시공원이라는 콘셉트로 1985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그 후로 이월드만의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통해 국내 3대 규모의 테마파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월드는 한해 평균 입장객 약 250만 명 수준인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로 톨립 축제, 스노우 판타지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접할 수 있고 모험과 전율을 즐길 수 있는 28개의 놀이기구, 동·식물과 함께 교감하는 체험형 콘텐츠, 문화 공연, 83타워의 전경 등 여러 가지 즐거움과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준다. 83타워는 해발 312m에 있는 팔각형 탑신의 형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전망타워이다. 이월드의 랜드마크로 안정감과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미를 살려 건축되었고, 전망대에서는 대구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아이스링크, 디지털 키즈카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해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월드는 총 4가지의 월드로 구성되어 있다. 겁 없는 자들의 명소인 '다이나믹 월드'에는 메가스윙 360, 허리케인, 바이킹이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어드벤처 월드'에는 카멜백, 뮤직익스프레스, 부메랑이 있다. 아이들의 천국 '매직 월드'에는 코코몽 관람차, 회전목마, 스위트컵이 있고 가족고객이 많이 찾는 '판타지 월드'에는 후름라이드, 알라딘, 고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갖췄다.

이월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 경영 상황에도 1억원 상당의 자유이용권을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3,300명에게 지원하였다. 이에 멈추지 않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월드는 지역 경제와 미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테마파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일로 나아가고 있다.



포산고 <Papillon>

업종현황

10~20대 고객 유치 노력...지역 명소화 '계획'

한국테마파크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에는 약 70만 명이 이월드를 방문하였으나 2021년에는 약 130만 명, 2022년에는 230만 명이 방문하면서 3배가 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휴업 기간동안 시설 정비와 개축과 같은 기본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고객 유치 사업과 마스코트 및 캐릭터 활용 확장, 이월드의 지역 명소화 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월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제휴 및 가입 연차별 차등 혜택제공과 연간회원 특별 이벤트나 SNS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마스코트인 비비, 포포, 조, 부, 틱톡으로 이루어진 '비비포포 프렌즈'를 활용한 기념품과 F&B 메뉴도 만들었다. 지난 10월 이월드 공식 SNS 계정에 동물농장에서 새로운 새끼 알파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끼 알파카와 관련된 캐릭터, 기념품, 이벤트도 추진했다. 캐릭터 사업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조경녹지를 활용한 체류형 테마 리조트 시설개발을 계획하는 등 '세계 유일의 타워와 공원이 어우러진 유럽식 도시공원'이라는 이월드의 특징을 부각하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월드는 참여형 이벤트나 공식 행사를 홍보하고 10대부터 2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SNS 계정을 운영하며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알리면서 새로운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드는 등 이월드만의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추후 이월드 내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소화 계획을 통해 83타워와 다른 이색적인 면을 가진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관광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산고 <Papillon>

포산고 <Papillon>

INTERVIEW 최수찬 이월드 인사팀 주임

Q.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월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펼친 노력을 소개해 주세요.

이랜드에 인수된 후 계속해서 성장하던 이월드는 코로나 때문에 2개월간의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재정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없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같은 시설보수 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함으로써 시설물 보완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의 이월드를 보시고 찾아오실 손님들의 반응을 기대하였습니다.

Q. 이월드 홍보영상을 기획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넣겠다' 싶은 이월드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온라인(홍보영상)의 특성상 전 세계 고객층을 대상으로 홍보의 범위를 확대해본다면, 이월드는 '파크와 타워가 함께 있는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고객은 83타워를 기대하고 이월드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새로운 광경에 감탄합니다. 또한, 이월드는 '도심형 테마파크'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테마파크들과 다르게 집과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오래된 나무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경도 잘되어 있어 미래에는 지역주민이 공원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두류공원으로의 확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 이월드의 주 홍보대상으로 보는 타깃 연령층 및 홍보방식이 궁금합니다.

이월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고객층을 주 홍보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휴 회사와의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출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Q. 마지막으로 특별한 날(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 기획에 많은 투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렌드와 접목하려 노력합니다. 고객조사와 더불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두 조합하여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필수입니다.

Q. 테마파크 관련 업종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월드만의 중요이념이 있나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테마파크에서만 아니라 이벤트, 기획과 같은 이월드의 모든 직종에서 콘텐츠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포산고 <Papillon>

(주) 푸딩



기업소개

메타버스의 신형 강자

(주)푸딩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회사로, 직원 수 20명의 강소 기업이다. 2019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액은 17억 2,081만원이다. 메타버스와 더불어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푸딩은 웹 3.0 시대에 필요한 메타버스 솔루션, 블록체인 솔루션, NFT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소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웹브라우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및 솔루션을 수요 맞춤형으로 개발,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생동감과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먼저 메타버스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대륜중·고등학교 100주년 기념 메타버스 행사를 진행했고, 제2회 대구메이커페스타 메타버스 행사를 개최했다. 2022년에는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푸딩월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푸딩월드는 오피스, 전시, 교육, 공연 등 가상환경을 꾸며 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직접 꾸미는 아바타와 아이템을 등록하고 적용하며 판매함으로써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푸딩월드 메타버스는 분양받은 토지 NFT 자산과 오피스 서비스가 특징으로 푸딩 코인으로 통합된 경제 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필지와 타인의 필지를 직접 꾸미는 크리에이터 역할도 할 수 있고 대여, 판매도 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는 푸딩 코인이 있다. 푸딩 코인은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소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푸딩월드라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필지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만들고 경험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를 결합하여 메타버스 내 자산 가치를 보장하고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일 정해진 수량의 푸딩을 수집할 수 있으며 2년마다 반감기를 거치게 된다. 또한 클레이스왑 페어에치폴을 통해 푸딩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일 높은 이자로 푸딩을 수령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인공지능챗봇케어플랫폼 개발 계약을 진행했고, 2022년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인공지능에는 모아이, 3D head AI modeling, 자세 교정 AI 학습용 데이터가 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모아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이다. 지금까지의 푸딩은 메타버스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더 초점을 맞춰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덕원중 <열망의창조>

업종현황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새로운 산업,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 기술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AI·블록체인 등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메타버스 생태계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기업(블록체인 등)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업·투자·인수 등을 통한 협력 생태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과 강력한 팬덤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며 플랫폼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효과를 경험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플랫폼 선점 시 가질 수 있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 확보, 결제 수수료 수익 등의 이점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또한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메타버스로의 대전환을 위해 자사의 지식재산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전문영역에서 일상과 업무 영역까지 확산하고 사람의 표정, 행동까지 모방한 아바타로 가상 세계에서 감정적 연결에 기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현실과 데이터가 동기화된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원격 업무환경에서 소통이 가능해지고 공유, 협업 진행 디지털 창작물이 NFT와 결합해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덕원중 <열망의창조>



왕선중 <시도>

INTERVIEW

홍지완 푸딩 대표



Q. 푸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쪽으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Q. 메타버스를 더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실제 교육에 쓰일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Q. 푸딩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해당 시장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앞서 말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이 아직 실생활과 가깝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메타버스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들고 싶은 메타버스나 계획된 메타버스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교육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알려진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튜터, 크리에이터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 방안도 모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원중 <열망의창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기업소개

건강한 정보문화 만들며 디지털 발전 앞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하 NIA)은 1987년 1월 30일, 국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위해 한국전산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정보화 기관이다. 현재 대표는 황종성이며,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도전, 신뢰, 공익이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에 있으며 서울과 제주도에 각



각 서울사무소와 글로벌센터가 있다. 원래 서울에 있었으나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온 기관들 중 하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매출액은 2020년 기준 1조 5,754억 4,270만 원이다.

지능정보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NIA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NIA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원본부, 정책본부, 지능데이터부 등으로 나뉘어져 일을 수행한다. 각각의 본부는 디지털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 데이터 제공, 국가사회 전반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국가의 인터넷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셈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연령대부터 사용법 대부분을 모르는 연령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사회가 이루어진다. NIA는 이에 따른 세대 격차를 줄이고 인터넷 활용방식을 교육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이런 일 이외에도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고민하고, 건강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 중독을 줄이거나 국민 체감 디지털 플랫폼정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친환경과 합쳐 디지털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NIA의 직원 수는 2022년 12월 기준 721명이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며, IT와 코딩 활용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NIA의 주요 간행물로는 정보화 정책 저널, IT & Future Strategy, 지능사회 이슈 분석 등이 있는데, 입사를 준비한다면 이를 정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는 국가의 디지털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건강한 인터넷 활용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다. 데이터, 인터넷으로 가득 찬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NIA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새론중 <창창미>

업종현황

과학과 디지털 기술 융합, 새로운 세상을 열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87년 1월 30일,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서비스 확충,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고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이름은 한국전산원이었으나 지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었고, 영문 약자인 NIA라고도 불린다.

NIA는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속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IT 관련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설립된 NIA에서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4)에 의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사업체는 2008년 대비 190.9%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종사자는 2014년까지 1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N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한국 AI경진대회를 주관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NIA는 이렇게 국민들과 힘을 모아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정책을 만드는 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론중 <창창미>



경혜여중 <드림캐쳐>

INTERVIEW 조성배 ESG혁신팀 팀장



Q. 요즘 디지털이 발전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디지털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중독 문제는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 정보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Chat GPT 교육 등을 중요하게 인식 중이며 앞으로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Q. NIA에서 타 기업들과 협력하여 주도한 사업이 있나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해 만든 백신예약 시스템과 마스크 잔여 확인 앱, 국가와 협력한 주민등록증·면허증·자격증 모바일화 등이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연말정산 간소화 같은 사업도 주도했습니다.

Q. 정보화 시대에서 NIA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기업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공공 업무에 대한 협력과 협약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통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Q. NIA가 발전해 오기까지 원동력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사회적 비용을 아끼며 국가 IT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측면에서 빠르게 발달한 것에는 NIA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Q. 건전한 정보사회 조성을 위해 NIA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I 활용 중의 기본 윤리를 가이드하거나 제작자/사용자의 윤리적 정신을 강조하며 마음속의 내재화를 돕는 등 신디지탈질서 정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Q. NIA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재 선발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AI나 IT 기술 활용 능력처럼 관련된 능력들을 평가하고, 앞으로는 파이썬과 알 등의 코딩 프로그램의 사용 역량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론중 <창창미>

화성산업



기업소개

살기좋은 도시건설의 주역

화성산업은 1958년 설립, 지역을 거점으로 65년간 건설업 외길을 걸으며 성장한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1972년 동아백화점 개점을 시작으로 주력 사업인 토목분야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금융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

화성산업이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아파트 건설업이다. 화성산업의 아파트 브랜드인 화성파크드림은 11회 굿디자인 선정,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환경주거문화대상, 굿디자인 최우수상, 조경 대상 등 각종 상을 휩쓸며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성산업의 대표 실적으로는 대구지하철, 엑스코 준공, 삼성라이온즈파크 건설 참여 등이 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는 물론 PC, 철구사업 등 건설 전 부문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화성산업의 2022년도 종합시공 능력 평가액은 1조167억 원으로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 평가 순위 전국 42위, 대구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총매출(6,457억 원)을 넘어선 6,83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산업의故 이윤석 명예회장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라는 정신에 충실하고자 1993년 개인재산으로 화성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화성장학문화재단은 매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연구 활동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환경보전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중이다. 그리고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화성자원봉사단도 있다. 봉사단은 매달 사랑의 집짓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지원 및 시설 정비, 사랑의 연탄배달, 독거노인 무료 급식, 재난지역 구호 활동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 분야 역시 지속가능한 건축이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산업 역시 ‘자연의 가치 추구’라는 기업이념 아래 친환경 주거단지 및 공원 조성, 생태환경복원사업 등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공간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화성산업은 ‘ESG 경영 보고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ESG’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업은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화성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가치를 증명해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앞으로 화성산업의 미래가 기대된다.

상원중 <온새미로>



업종현황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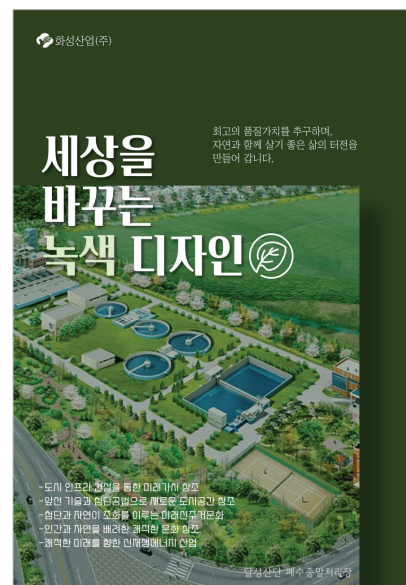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6.25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반백 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 역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총 GDP 중 4.7%를 차지하는데다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도 1천만여 명에 이를 만큼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건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기업체 수는 87,239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이하 건설연) 조사 결과 2023년 9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2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약 1.6%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건설연은 지난 1월 개최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건설경기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다. 금리상승,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더불어 건설 관련 물가의 상승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이다. 건설경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융환경이 개선되는 2024년 이후에야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주액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국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 수주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기대해 본다.

상원중 <온새미로>



상원중 <온새미로>

INTERVIEW

김민호 인사총무팀 계장 / 안정은 마케팅팀 주임 / 백중선 대외협력팀 계장

Q. 주요 사업 중 PC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PC는 ‘Precast Concrete’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시공은 철근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녹인 콘크리트로 덮어 굳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우리 회사의 PC공법은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축물 일부를 만든 후, 이음새를 연결해 조립하는 형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화성산업 의성공장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현재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금융 쪽으로도 진출하기 위해 ‘KCGI 자산운용’과 협업하고 있으며, 대구는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뻗어나가 회사의 규모를 더욱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환경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축 분야 역시 지속가능한 건축이 각

광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화성산업이 하는 것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화성산업은 ESG 경영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은 친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맞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92%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Q. 화성산업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화성장학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학교육·사회복지·환경보전 등의 사업을 통해 장학금 수여, 교육기자재 기부, 소외계층 지원, 환경공모전 개최 등을 진행하는 사회문화재단입니다. 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문화를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화성자원봉사단’을 조직, 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시설 정비, 사랑의 연탄배달, 독거노인 무료 급식, 재난지역 구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Matching Grant 방식으로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중 <온새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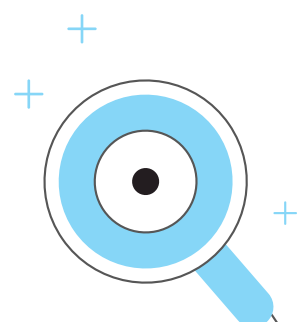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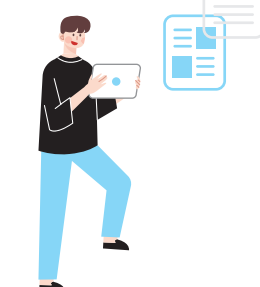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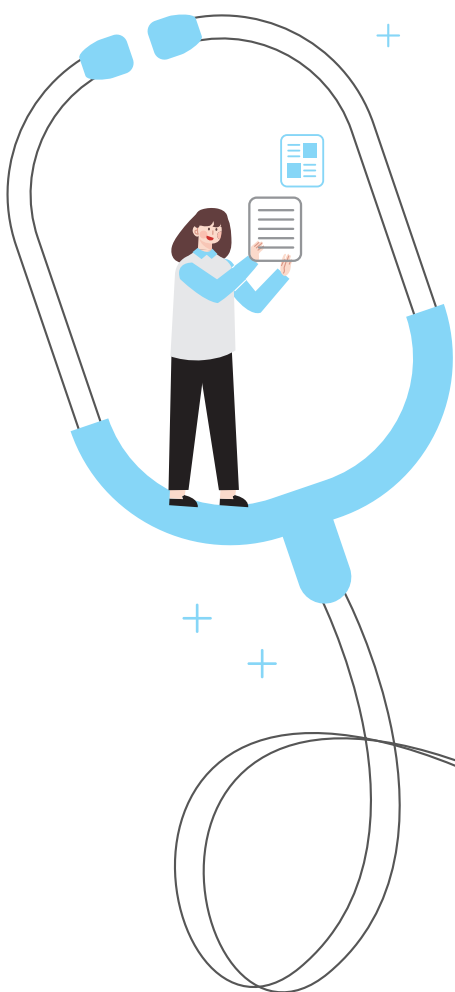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채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꿈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꿈청진기는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정보, 기업 분석, 직업인의 특성 등에 대한 취재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 온라인 기사작성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결과물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